

# 힌두교·불교 혼재 속 음식·장례 등 티베트문화 네팔 정착

## 아시아 문화 <91> 원류를 찾아서

### 10부 '네팔'

(12)보다나트 사원과 티베트 난민촌

지리적 영향 혼합된 문화 성격  
자신만의 고유 문화 꽃피워  
'보다나트' 사원 카트만두 상징

포카라에 티베트 4개 난민촌  
'모모' 만두, '툽바' 국수 등  
새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아

훼손되지 않은 자연 간직한 채  
상대방의 존재 인정할 줄 아는 네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배워야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불교사원이자 네팔 티벳불교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보다나트 사원 전경.

네팔=글 박기웅·사진 김진수 기자

“불교 사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땅을 좀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네팔 카트만두 일대를 다스리던 왕을 찾아간 한 노파는 간곡히 청을 올렸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노파는 가난했고, 당연히 가지고 있던 땅도 없었다. 왕에게 부탁해 땅을 얻으면 그곳에 불교사원을 지을 생각이었다.

왕은 그에게 말했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대에게 땅을 하사하겠노라.”

하지만 왕의 이런 결정에 신하들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왕이 땅을 준다”고 알려지면 땅을 얻기 위해 백성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등 혼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왕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백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꾀를 냈다.

노파를 다시 부른 왕은 그에게 말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다만 이 물소가죽 크기 만큼만 가져가라.”

노파는 왕이 준 물소가죽을 가느다란 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실을 길게 늘어뜨려 땅을 채웠다. 그 둘레의 길이만 180m에 달했다.

줄지에 큰 땅을 주게 된 왕은 당황스러웠고, 노파가 꾀를 냈다고 했다. 자신을 속인 별로 그 땅 위에 사원을 세울 때 우물과 수돗물, 강물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명했다.

사원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처지에 놓였지만 노파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긴 천들을 땅 위에 깔았다. 그리곤 새벽 내 이슬을 머금은 천을 짜내 물을 모아 결국 사원을 지을 수 있었다.

네팔 최대의 불교사원이자 카트만두를 상징하는 사원, 네팔 티벳불교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보다나트'(Boudhanath) 사원과 얽힌 전설이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인 영향을 받아 아리아족, 힌두문화, 불교문화, 티베트, 몽골 등 각 나라의 종교가 혼합된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도 티베트의 생활문화와 함께 힌두교와 불교 등 종교문화도 두루 뒤섞이면서 네팔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피워냈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 산악민족의 삶을 들여다보면 티베트 문화가 그 민족 문화의 뿌리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의 생김새는 물론, 입는 옷과 음식, 장례절차 등 삶과 문화가 비슷하다.

네팔에서의 티베트 문화는 점차 더 확산하고 있다. 티베트를 빼앗긴 티베트 난민들이 네팔에 동지를 틀게 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티베트인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티베트 문화가 뿌어나고 있다.

네팔의 또 다른 도시 포카라에는 1965년 설립된 티베트인 집단 정착촌인 '파실링 티베트 난민촌'을 비롯한 4개의 난민촌이 있다. 난민촌 내에는 탁아소와 학교, 불교사원, 카페 공장 등 웬만한 시설들이



네팔 포카라에 형성된 티베트 난민촌. 120여개 민족이 어울려 고유의 문화를 티베트 네팔에서 티베트 난민들로 인해 네팔 속 티벳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모두 들어서었다.

난민촌이 형성되면서 티베트의 음식문화가 네팔 사람들의 삶에도 속속 정착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티베트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우리나라 만두와 그 형태나 맛이 똑같은 '모모'(Momo)가 있다. 또 수제비라고 할 수 있는 '툽툽'(Thenthuk)과 국수 요리인 '툽바'(Thukpa)를 파는 티벳음식 전문점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초 인도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팔에서는 티베트 난민들이 오기 전까지 국수 요리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처음엔 국수의 모양이 '지렁이 같다'며 외면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네팔을 가면 빼놓

지 않고 먹어야 할 하나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네팔의 문화는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네팔의 문화 원형을 '어우러짐'에서 찾을 수 있듯 전혀 다른 것이 모이고 섞이는 융합의 과정을 거쳐 완전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안고 있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채 종교와 문화의 꽃을 티베트, 나의 존재만큼 상대방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네팔. 진정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할 광주가 네팔을 주목해야 할 이유일지 모른다.

<네팔편 끝>

/pboxer@kwangju.co.kr



티베트 음식인 만두 '모모' (위)와 국수 '툽바'.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